

8월 2주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왕

- 본문 말씀: 열왕기하 19:14~19 (8월 5일 본문)
- 포인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말씀드려요.

1. 찬양

(경배와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2. 기도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해 주세요.

3. 말씀

열왕기하 19:14~19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14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15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7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18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우리말성경>

14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호와와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 놓았습니다. 15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
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16 여호
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 보소
서. 17 여호와여, 앗시리아 왕들이 그 나라들과 그 땅들을 *폐허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18 또 그 왕들이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어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과 돌덩이였기 때문입
니다. 19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하셔서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 본문 이해

앗수르 왕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 선전 포고용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는 두렵고 답답했지만, 앗수르 왕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는 성전에 올라가 산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 놓고 기도했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예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히스기야는 29년 동안(주전 728~687년) 유다를 다스렸어요. 당시 앗수르는 고대 근동을 장악하던 강대국이었어요. 북 이스라엘은 앞서 주전 722년에 앗수르 왕 살만에셀 5세에 의해 멸망했지요. 앗수르는 살만에셀 5세와 사르곤 2세를 거쳐 산헤립이 왕이 된 후에도 유다를 끊임없이 위협했어요. 결국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했어요(18:13~16). 그러나 산헤립은 만족하지 못하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산헤립은 예루살렘에 랍사게(앗수르의 고위 관료 명칭)를 보내 항복을 요구했어요. 히스기야의 신앙을 비웃으며 백성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앗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더 잘 먹고 잘사는 길이라고 선동했어요. 또 어떤 신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수 없었다며,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비하했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는 먼저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천하만국의 주인이며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에 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앗수르가 얼마나 강하고 위협적인지, 어떻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서슴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지 모두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 유다를 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사방이 짝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믿음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요.

“히스기야 왕 제십사년에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앗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앗수르 왕이 곧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라”(왕하 18:13~16).

≡ 4. 나눔

1) 앗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했나요?(14~15절) 그는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나요?(15~19절)

■ 저학년

히스기야는 앗시리아 왕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드렸나요?(16~18절)

■ 유아·유치

히스기야는 앗시리아 왕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드렸나요?(16~18절)

□ 질문 가이드

앗수르 왕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이 높이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한 후,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인격이심을 알기에 모든 상황을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히스기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예요. 그는 사방으로 에워싸고 압박해 오는 강력한 앗수르의 공격에 믿음으로 맞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주변 나라를 차례대로 정복하는 앗수르 왕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어요.

2)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 내며 기도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 **저학년**

하나님께 내가 속상하고 억울했던 일, 슬프고 외로웠던 일들을 숨김없이 기도로 말씀드려 보세요.

■ **유아·유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속상하고 슬펐던 일에 대해 나누고 함께 기도드려요.

□ **질문 가이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신을 두렵게 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도움이심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도 지나치지 않고 귀 기울이시는 자상하신 하늘 아버지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자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 없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랑받은 자녀예요.

≡ **5. 감사하기**

힘들고 답답할 때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저희 가족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